

한우산업 전망과 수입생우의 수익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 상 곤* 정 민 국**

1. 서론

2001년 생우와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된지 1년 정도 지났다. 그 동안 꾸준히 성장해 오던 한우 산업이 1997년 말 외환위기로 큰 고비를 맞이했고, 이 어려움 속에서 많은 소 사육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외환위기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01년 생우와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한우 산업은 또 한번의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값싼 쇠고기의 수입 증가와 생우 수입 가능성에 따른 사육심리 불안, 가축질병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국내외 환경변화와 가축질병의 영향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산지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일련의 환경 변화 속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국내 산지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간단치가 않다.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사육농가들은 소를 계속 사육해야 될지, 한다면 출하와 입식을 언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궁금증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록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이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2. 한우산업 동향과 전망

2.1. 쇠고기 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

생우와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2001년부터 쇠고기 수입 쿼터 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 수입 관세율은 2004년까지 40%로 점차 낮아질 계획이며, 2004년 이후의 관세율은 차기 WTO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쿼터제 폐지로 민간업체에서는 원하는 양만큼의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지불하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되었다. 쇠고기의 수입 증가로 과거에 비해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수출국들에 의해 제기되었던 우리나라의 수입육 구분판매제도가 2001년 1월 WTO 상소기구의 최종판정에 따라 2001년 9월 국내에서 폐지되었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수입육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사라지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를 같은 곳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 쇠고기를 구분판매 하던 시절에 발생했던 부정유통 문제가 구분판매제 폐지로 쇠고기 유통과정에 있어서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판매제 폐지로 인한 부정유통 등 유통과정의 문제
중국의 WTO의 가입이 국내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의 여건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1년 12월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이다. WTO 가입을 위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내용을 보면, 중국의 축산물에 대한 관세는 쇠고기의 경우 현행 45%에서 2004년까지 12%로 대폭 감축하기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대폭적인 관세율 삭감은 2004년 이후 한국의 축산물 부문에 대한 수입관세를 결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으로 중국의 WTO의 가입이 국내 한우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쇠고기 생산은 565만톤으로 국내 쇠고기 생산의 26배에 달한다. 중국은 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쇠고기 생산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현재 중국은 쇠고기 순수출국이지만 쇠고기 수출량은 1991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중동 지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나, 수출량은 5만톤 미만으로 생산량에 비해 미미하며 수출량은 자국 내 소비증가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자료에 따르면, 2002년 중국의 쇠고기 생산은 전년에 비해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성장에 따른 자국 내 수요 증가, 가축질병, 유통망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출은 2001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WTO의 SPS(동식물검역)협정에 따르면 질병 발생 지역이 '국가'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 간 협의에 따라 '지역' 단위로 변경될 수 있다. 한·중간 협의로 질병 발생 지역이 '지역' 단위로 바뀔 경우, 중국 내 성(省) 중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 내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수입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쇠고기의 국내 가격은 향후 국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01년 수입쇠고기 도매원가는 환율

의 상승으로 kg당 5,533원으로 전년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2002년 국제 가격은 소폭 상승하지만 환율과 관세를 하락으로 도매원가는 kg당 5,537원으로 2001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가격과 관세율은 하락하고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쇠고기 도매원가는 계속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에 따라 한우고기의 가격경쟁력은 수입쇠고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수입쇠고기 가격 변화 전망

	단위	2001	2002	2004	2005	2012
국제가격	달러/kg	2.66	2.72	2.65	2.57	2.69
환율	원/달러	1,291	1,270	1,225	1,200	1,180
관세율	%	41.4	40.8	40.0	39.0	32.3
도매원가	원/kg	5,533	5,537	5,181	4,890	4,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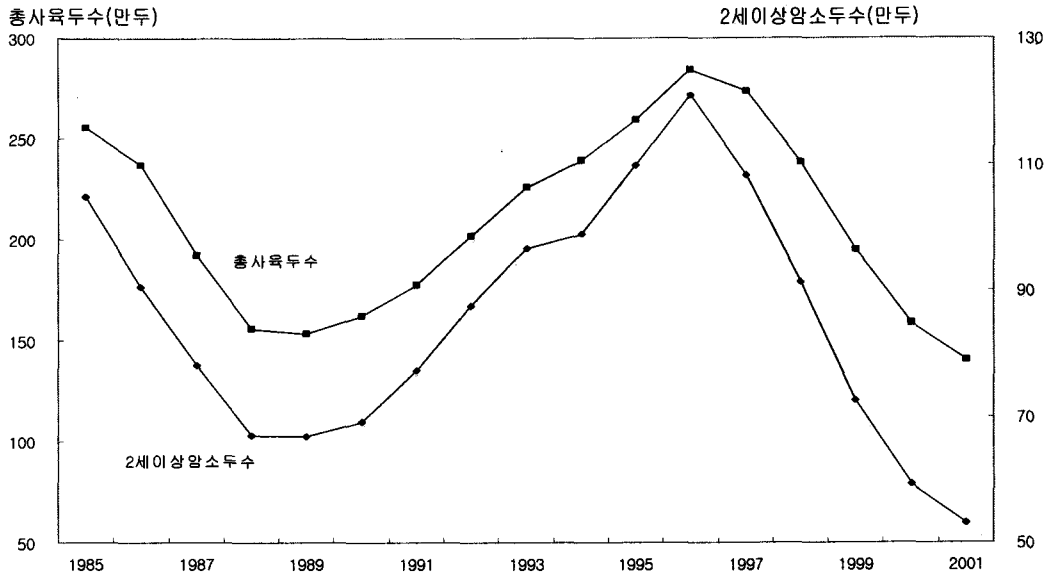
- 1) 국제 가격은 미국 FAPRI(Food and 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2001 전망치를 이용하여 CIF기준가격으로 환산.
- 2) 관세율은 2004년 관세율의 15%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동일한 폭만큼 감소한다고 가정.
- 3) 도매원가는 국제 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 4) 2001년은 1~11월 수입실적, 2002년 이후는 전망치임.

2.2. 한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동향

2.2.1. 한우 사육동향

한우 사육두수는 1996년 284만두(12월기준)로 최고두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외환위기와 수입개방에 따라 사육심리가 위축되었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번식우의 마리당 소득은 감소하였다. 그 결과 암소 도축률은 상승하였고 암소사육두수는 감소하여 한우 번식기반이 우려할 만큼 악화되었다. 특히, 2001년 생우와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으로 사육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어, 2001년 12월 한우 사육두수는 140만 6천두로 1996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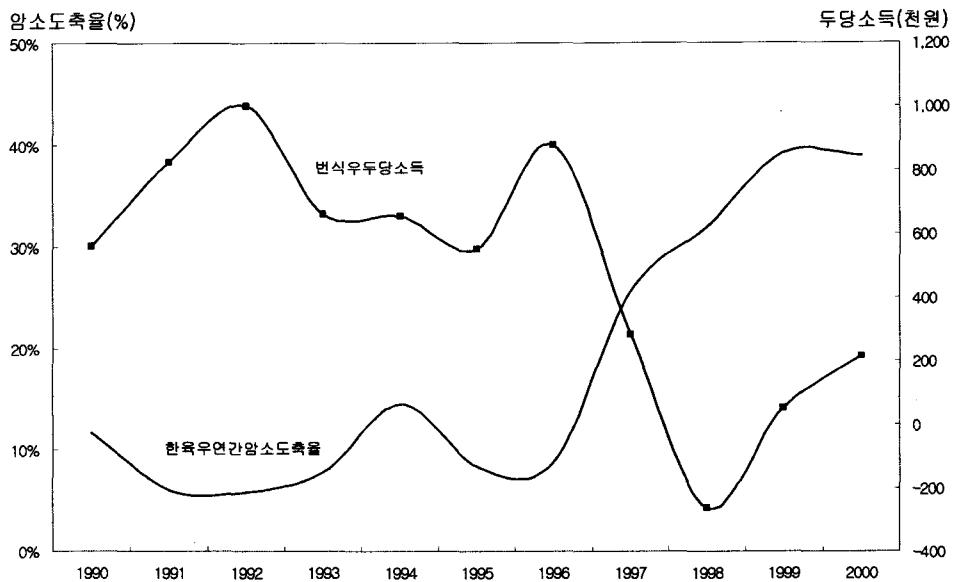
〈그림 1〉 한우 사육두수 동향



주: 사육두수는 매해 12월에 발표된 값임.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그림 2〉 번식우마리당소득과 암소 도축률 변화비교



자료: 축협중앙회(축산통계총람, 1998), 농림부(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 1999, 2000)

한우 사육가구수는 1996년 12월에 51만 3천호이던 것이 외환위기와 수입개방의 영향으로 2001년 12월 23만 5천호로 55% 감소하였다. 호당 사육마리수는 1996년 12월 5.5두에서 2001년 12월 6.0두로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1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1996년 120만두이던 2세 이상 암소두수가 2001년에는 53만2천두로 감소하여 번식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10~30두 사육규모의 농가 수도 1997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2001년 하반기 이후 높은 송아지가격으로 밀소 구입비가 증가하자 많은 농가들이 일관사육을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다. 일관사육을 하는 경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데 따르는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송아지 폐사율이 일반 소규모 농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관사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송아지 폐사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0두 이상 규모의 사육두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한우 사육은 점차 전업화 되어 가는 추세이다.

2.2.2. 쇠고기 수급 동향

2001년 국내 쇠고기 총공급량은 39만 5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17.0%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사육두수 감소로 전년에 비해 25.3% 감소하였고, 수입량은 유럽에서 발생한 가축질병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전년에 비해 27.4% 감소하였다.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의 재고량 전량 방출로 2001년 말 재고량은 전년의 7만3천톤에서 2만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쇠고기 국내 총소비량은 37만 5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하였다.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23.9% 감소한 반면, 수입쇠고기 소비량은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재고 소비가 증가하여 12.3% 증가하였다. 2001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의 8.5kg보다 7.1% 감소한 7.9kg으로 추정된다.

〈표 2〉 쇠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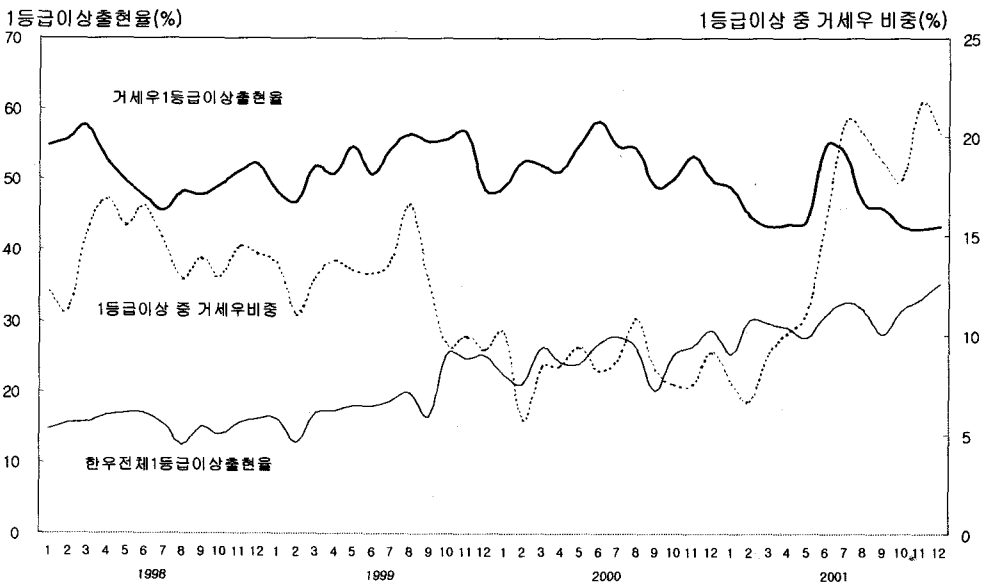
		1995	1998	1999	2000	2001
국산육	생산량	154.7	264.1	226.9	214.1	159.9
	소비량	154.7	260.1	239.7	212.4	161.7
	재고량	0.0	12.8	0.0	1.7	0.0
수입육	수입량	148.1	77.0	162.6	222.8	161.7
	소비량	146.5	85.4	153.0	190.0	213.4
	재고량	5.7	29.4	39.0	71.7	20.0
총공급량		306.9	387.7	431.7	475.9	395.1
총소비량		301.2	345.5	392.7	402.4	375.1
1인당소비량 (kg)		6.7	7.4	8.4	8.5	7.9

주: 2001년은 잠정치. 자료: 농림부(정육기준)

국내 쇠고기 공급부분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이다. 최근 들어 한우 사육농가들의 고급육 생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의 거세장려금 지급 등으로 거세우두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우전체 도축두수 중 거세우의 비율은 1998년 3%에서 2001년에 17%까지 상승하였고, 비거세우의 도축비율은 1998년 50% 수준에서 2001년에는 29%까지 하락하였다. 정부와 생산자가 고급육을 생산하겠다는 노력의 결과, 한우의 1등급이상 출현율은 1998년 15%에서 2001년 12월 35%로 높아지게 되었다. 1등급이상 출현두수 중 거세우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12% 수준에서 2001년 하반기에 20%로 나타나 고급육 생산이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거세장려금 지급에 따른 고급육 생산의 효율성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하반기에는 큰소 가격이 급등하여 거세와 비거세우의 가격 차이가 축소되어 거세우 장기비육에 대한 경제적 유인은 작아졌다. 이 때문에 거세우 출하두수 중 1등급이상 출현율은 1998년 최고 58%에서 2001년에 42% 수준으로 낮아져 고급육 생산의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국내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쇠고기가 국내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우농가들은 수입산 쇠고기와 품질을 차별화시키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림 3〉 한우 성별 1등급이상 출현율 비교(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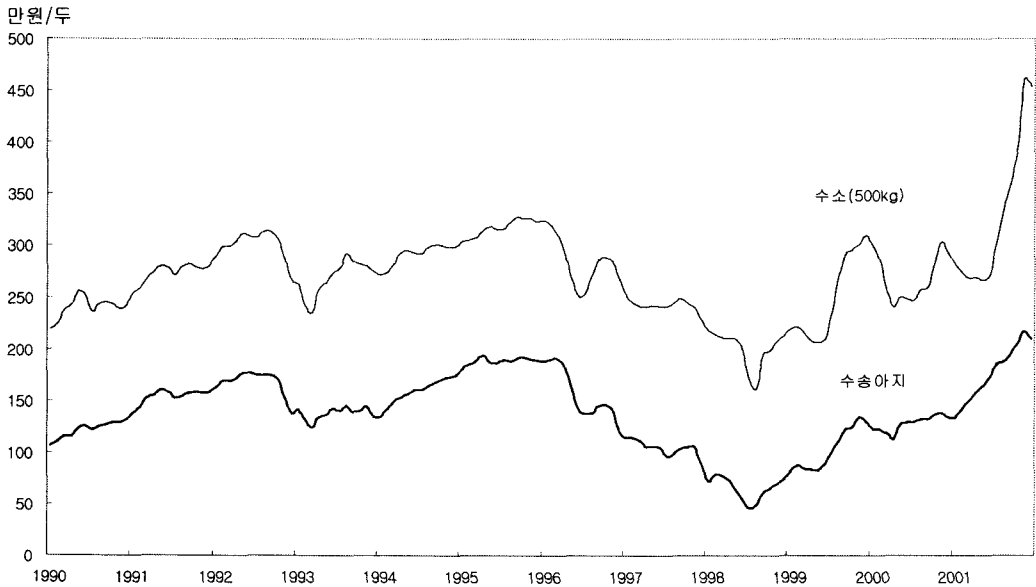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등급판정소.

2.2.3. 가격동향

1997년 6월 이후 한우 사육두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한우수소(500kg) 산지 가격은 1998년 8월(161만원) 이후 상승 추세를 보였다. 2001년 하반기에는 출하두수 감소와 유럽 광우병(BSE)발병에 따른 쇠고기 수입 감소로 한우수소(500kg) 가격이 7월에 300만원에서 11월에 460만원대까지 급등한 후 2002년 3월에 360만원까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하반기에 산지 큰소 가격이 급등하자 번식농가들 중 일부는 향후 산지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암소를 단기비육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암소 도축은 증가하였고, 한우 번식기반 회복속도는 지연되었다. 또한 송아지가격의 급상승으로 비육농가들의 경영여건도 악화되었다.

〈그림 4〉 한우 산지가격 변동



주: 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한우리정보.

국내 한우고기 공급량이 감소하여 한우고기 도매 가격은 1998년 이후 2001년말까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유럽에서 발생한 가축질병의 영향으로 2001년 상반기부터 쇠고기 수입이 급감하면서, 도매 가격은 5월 이후 10월까지 급상승한 후 2002년 3월까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앞으로 국내 출하두수 감소에 따라 국내 쇠고기 가격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쇠고기에 의해 국내 쇠고기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농가에서는 가격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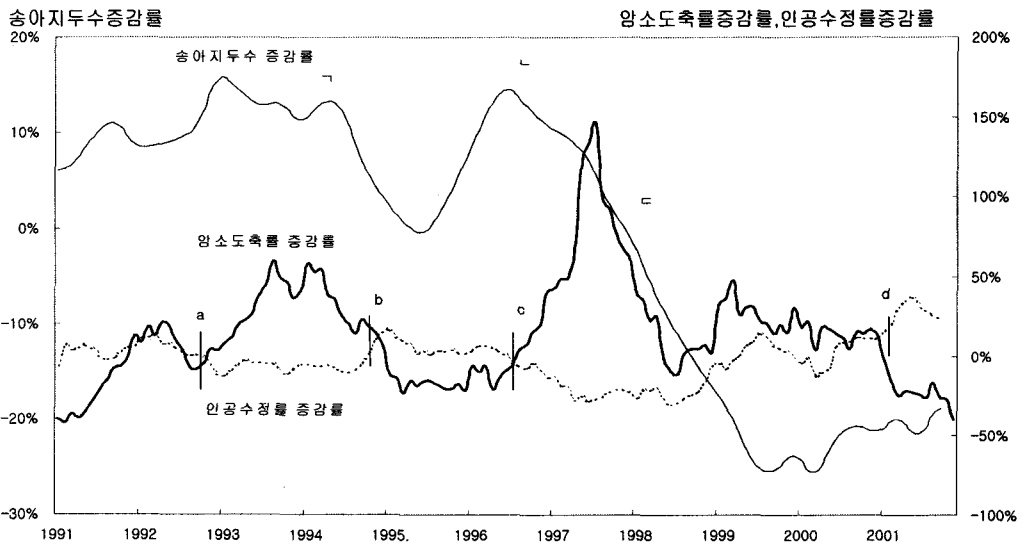
쟁력 외에 품질경쟁력 쪽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3. 한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전망

2.3.1. 사육의향 변화와 사육두수 전망

2001년 8월 이후 큰암소 가격이 송아지 가격에 비해 좀 더 높게 상승하면서 30두 이상 중·대규모 사육농가에서는 암소 비육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1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에서는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번식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하반기 이후 산지 송아지가격 상승으로 암소 사육농가들의 번식심리는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다. 암소 도축률은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있고 인공수정률은 전년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이어서, 2002년 상반기에는 송아지두수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의 번식의향이 살아나고는 있으나, 번식을 위주로 하는 30두 미만 사육농가의 암소 사육비율은 68%(2001년 12월 기준)으로 1년 전 82%에 비해 크게 하락* 하여 사육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한우 사육의향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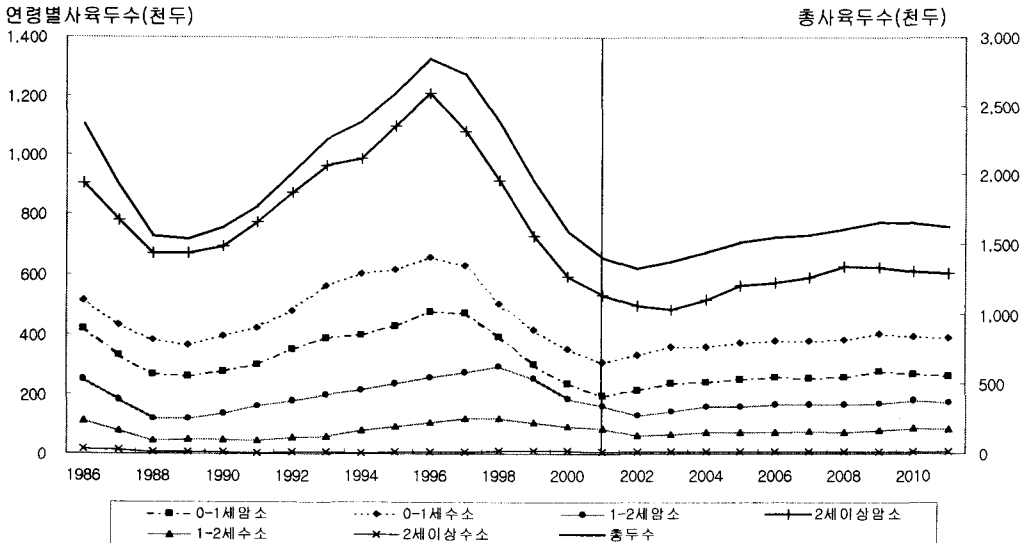
주: 증감률은 전년 이 기간과 대비한 것으로 3개월 이동평균값임.

자료: 농림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농업관측센터 한우사육 표본농가 570개에 대한 2001년 11월 조사치.

2002년 1세 미만 송아지두수는 암소 도축률 하락과 인공수정두수 증가로 전년에 비해 4만두(8%)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출하두수가 송아지생산두수보다 많아 한우 총사육두수는 133만두로 전년에 비해 약 7만두(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송아지두수가 감소하였고 2002년 가격 상승으로 농가 출하의향이 높아, 2002년 1~2세 한우 두수는 전년에 비해 약 8만두(23%)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세 이상 암소두수는 번식심리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중·대규모 농가의 암소 비육의향 증가로 전년에 비해 약 4만두(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번식심리가 점차 회복되면서 2003년부터 한우 사육두수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에는 160~170만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한우 사육두수 전망



자료: 2001년까지는 농림부 발표치, 2002년 이후는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

2.3.2. 쇠고기 수급과 가격전망

2002년 경제성장률이 4%로 전망되고 월드컵특수, 지방자치단체선거 등에 따라 쇠고기 수요는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국들의 관측행사 강화와 관세율 인하, 국내생산량 감소로 수입육 수요는 향후 2~3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쇠고기 총수요는 40만 4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국산육 소비량은 6% 감소하고, 수입육 소비량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에 비해 0.6kg 증가한 8.5kg으로 전망된다.

국내 쇠고기 생산은 산지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출하두수 감소와 번식의향 증가에 따른 암소 도축 감소로 2004년까지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출하두수 증가로 국내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쇠고기 수입량은 급감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생산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쇠고기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쇠고기 자급률(소비량기준)은 38%으로 전년에 비해 5%p 감소하고, 2012년에는 33%까지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2002년 한우수소(500kg) 산지 가격은 국내 생산이 전년(298만원, 실질가격)에 비해 감소하여 300~330만원(실질가격)의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까지는 국내 생산이 계속 감소하여 한우수소 산지 가격도 300만원 정도(실질가격)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율 하락과 국내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고급 냉장육 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4년 이후 추가로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수입쇠고기 증가로 한우 시장 점유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우 사육농가는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 대비하여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표 3> 쇠고기 수급 및 가격(실질) 전망

단위: 천톤

		1995	1998	1999	2000	2001
국산육	생산량	154.7	264.1	226.9	214.1	159.9
	소비량	154.7	260.1	239.7	212.4	161.7
	재고량	0.0	12.8	0.0	1.7	0.0
수입육	수입량	148.1	77.0	162.6	222.8	161.7
	소비량	146.5	85.4	153.0	190.0	213.4
	재고량	5.7	29.4	39.0	71.7	20.0
총공급량		306.9	387.7	431.7	475.9	395.1
총소비량		301.2	345.5	392.7	402.4	375.1
1인당소비량 (kg)		6.7	7.4	8.4	8.5	7.9

주: 산지 가격은 1995년 기준 GDP 디플레이터로 디플레이트 한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2001년은 농림부 발표치).

3. 수입생우의 수익성 분석

작년 호주산 생우가 국내로 수입되었을 때 국내 생산자단체들은 호주산 수입 생우의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고 계약농가에 대하여 사료공급을 중단하기 위한 운동도 전개하였다. 생우수입이 국내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그 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생우 수입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수입된 생우사육의 채산성은 어떤지에 대해 살펴보자.

3.1. 생우 수입 현황과 문제점

2001년 1월부터 생우수입이 허용된 후 3월 30일 호주 브리스번항에서 출발한 호주산 소 663마리가 처음으로 4월 16일과 18일 이틀간에 인천항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수입된 생우의 품종은 헤어포드와 그 교잡종이며, 거세우이다. 수입된 생우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계류장에서 15~20일간 혈청검사 등 각종 검역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호주로부터 수입한 모든 생우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8마리가 제1종 법정전염병인 블루팅병(Blue tongue) 양성으로 판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불합격 조치되고 반송·폐기되었다. 2001년 5월 18일~21일에 수입된 호주산 수입생우 2차분 6백61두에 대한 검역결과 2두가 블루팅병 항체양성으로 판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반송, 폐기(살처분) 조치되었다.

생우수입과 관련된 문제점

생우 수입과 관련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의 **가축질병의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검역과정에서 10마리가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출국에서 전염병에 걸린 소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부했다는 것부터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둘째**, 수입 생우의 국내산 **한우로의 둔갑판매** 가능성 등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이다. 수입된 생우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되면 국내산 육우로 표시되어 유통될 수 있다. 비육된 수입 생우가 도축되기 전에는 “수입된 국내산 육우”로 유통될지 모르지만 도축 후 소매단계에서는 국내산 한우고기로 부정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생우 수입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국내 한우농가의 **사육심리 위축**이다.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 12월 150만두 선마저 붕괴되어 지속적으로 한우 사육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생산기반의 위축은 송아지 값에 영향을 준다. 2000년 초 80만원정도였던 수송아지가 2001년 말 200만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송아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육농가는 채산성 향상을 위해 생우수입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다.

3.2. 수입생우 비육에 따른 수익성 분석

최근 호주에서 수입된 생우사육의 채산성은 어떤가? 한우에 비해 육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수입 생우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이를 사육하는 국내 양축가 또는 업자의 채산성에 달려있

다. 수입생우의 채산성은 6개월 정도 비육하여 판매할 때 가격과 경영비의 차액의 크기에 달려있다. 수입생우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일당 증체량과 육질수준이며, 경영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입생우 구입비를 제외하면 사료비이다. 2001년 수입되어 비육되고 경락된 생우를 근거로 수입생우의 채산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001년 한 해에 약 1,300여두의 호주산 생우가 국내로 수입되었으나, 일반 농가에 분양·사육되지는 못했다. 수입생우 중 대부분은 조기 도축되었으며, 약 270두가 국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6개월 정도 비육된 후에 시장에 출하되었다. 따라서 조기 도축된 물량은 논의에서 제외시키고, 6개월 정도 비육된 후에 시장에 출하된 생우와 국내에서 사육된 한우, 육우와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수입생우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일당증체량과 판매가격에 대해 알아보자. 수입생우의 일당 증체량은 한우보다 높아서 평균 1.2kg인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수입생우를 6개월 비육하여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생체중은 650kg이며, 지육률 61.8%를 적용하면 지육중량이 402kg이 된다. 호주산 수입생우의 경락결과는 거의 C3 등급이었고, 경락가격은 지육 kg 당 6,642원으로 국내산 육우(젓소 거세우) B3 등급 9,422원(2001년 11~12월 평균단가)보다 훨씬 낮았다. 다음은 경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송아지구입비와 사료비에 대해 알아보자. 수입된 호주산 생우는 선적시 체중이 420kg 안팎이고, 마리당 수입가격은 현지 매입단가 108만원에다 관세 41.2%, 검역비 등 부대비용을 합쳐 17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입생우 비육에 따르는 사료비는 10kg 당 증체비를 약 3만원으로 가정할 때 230kg(출하체중 650kg에서 송아지체중 420kg를 뺀)를 증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7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산과 비교하기 위해 수입생우가 경락된 시점과 동일시점인 2001년 11~12월에 경락된 한우와 육우를 예로 들어 비교해 보자. 한우의 1일 증체량은 1.0kg로 육우는 수입생우와 동일한 1.2kg으로 가정하였다. 경락가격은 2001년 11~12월의 평균 경락가격을 사용했고, 등급은 B2와 B3 두 개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수입생우(거세우)와 비교하기 위해 국내산 육우도 젓소거세우를 예로 들었다. 한우의 10kg 생산비는 3만4천원, 육우는 수입생우와 동일한 3만원으로 가정하였다.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우, 육우, 호주산 생우의 두당소득을 회전율을 고려하여 월간 두당 소득으로 나누어 환산해 보았다. 그 결과 수입생우(호주산) 비육의 마리당 월간 소득은 B3등급을 받는 젓소거세우의 약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생우 비육의 경제성은 국내산 육우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한우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2001년은 유럽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육 소비가 기피되었고, 국내산 쇠고기 공급물량 부족으로 국내산은 가격이 강세를 띤 한 해였다. 이런 현상이 사라진다면, 수입생우와 국내산 한우와 육우의 수익성 차이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수입생우의 상대적 수익성은 국내산에 비해 떨어지지만, 절대적인 수익성 자체는 (+)이다. 즉, 농가

입장에서 볼 때 수입생우 비육에 따르는 채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내산과 수입생우의 가격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진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육농가들로서는 생우수입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내 사육기반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 생산자와 정부 모두 한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설령 수입생우가 국내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내 검역능력(연간 최대 8,510 마리)을 감안할 때 국내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량의 1% 미만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송아지 비육에 따른 마리당 수익성 비교 (2001. 11~12 기준)

	단위	한우전체		육우(젃소거세)		호주산
		B2등급	B3등급	B2등급	B3등급	C3등급
송아지체중	kg	250	250	75	75	420
출하체중	kg	584	584	700	700	650
1일 증체량	kg	1.0	1.0	1.2	1.2	1.2
비육기간	월	11.1	11.1	17.4	17.4	6.4
송아지구입비용	천원/두	2,509	2,509	754	754	1,783
증체비용	천원	1,137	1,137	1,905	1,905	701
총비용 (송아지+증체비용)	천원	3,645	3,645	2,658	2,658	2,483
지육생산량	kg	361	361	433	433	402
지육단가 (11,12월 평균가격)	원/kg	15,768	14,560	11,291	9,422	6,642
판매액	천원	5,691	5,255	4,884	4,076	2,668
두당소득	천원	2,046	1,610	2,226	1,418	185
월간두당소득	천원/월	184	145	128	82	29

- 1) 한우의 출하체중은 590kg가정(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 2001), 육우거세우는 700kg, 호주산 생우는 650kg 가정.
- 2) 한우의 1일증체량은 1.0kg, 육우와 수입생우는 1.2kg 가정.
- 3) 한우와 육우의 송아지구입비용은 2001년 11~12월 평균가격임. 수입생우는 2001년 국내에 들어와 농가에게 인도된 가격임(실제는 인도되지 않았음).
- 4) 한우의 10kg 생산비는 34,035원 가정(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 2001), 육우는 수입생우(10kg당 30,472원)와 동일하다고 가정.
- 5) 지육생산량은 출하체중*지육율(61.8%가정, 농림업 주요통계 2001 단위환산).
- 6) 한우와 육우의 경락 가격은 호주산 생우와의 비교를 위해 '01년 11~12월 시기의 B2등급과 B3등급 평균가격사용.
- 7) 호주산 생우의 경락 가격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약 6개월 사육 후 도매시장에 상장된 272두의 평균 경락가격을 사용 ('01년 11.10~12.20에 경락됨).
- 8) 마리당소득 = 판매액 - 총비용
- 9) 마리당 월간 소득 = 마리당소득 ÷ 비육기간(월)

4. 결론

2001년 드디어 생우와 쇠고기시장이 관세율에 의해 완전 개방되었다. 다른 산업들도 그러하듯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보장받기가 힘들게 되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산업 자체가 정체되고 결국에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농가 단위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고급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작년 한 해를 볼 때, 생우수입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한우협회 주도하에 많은 사육농가들의 참여로 국내 생우 수입업자도 수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행행사에 의존하여 언제까지 생우 수입을 억제할 수 만은 없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수입쇠고기에 밀리지 않는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이러한 경쟁력 확보와 아울러서 사육농가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소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전망을 가지고 농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사육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거나, 혹은 너무 불안에 떠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올 봄에 송아지두수 증가로 사육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2003년이 지나면서 사육두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쇠고기 공급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소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향후 1~2년간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송아지를 입식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비육기간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소값이 좋다고 하여 무작정 송아지를 입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오히려 그 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소를 생산하여 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할지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육농가들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역할도 중요하다. 먼저 수입생우로 인한 해외 질병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현지의 검역조건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수출국의 검역부주의가 재발할 경우 생우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검역과정의 검사 항목도 대폭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입생우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표시와 거래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시장 개방, 월드컵과 같은 국제행사 개최 등 해외로부터 악성 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검역과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생산자,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면, 국내 한우산업의 앞날은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